

제43회 전국과학전람회 수상자 발표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처는 지난 9월 11일 제43회 전국과학전람회 수상자를 발표했다. 영예의 대통령상에는 학생부에서 '귀제비집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우리들의 탐구' 작품을 공동출품한 대구 경북사대부속초등학교 6학년 이성훈·도재록학생이, 교원 및 일반부에서는 '멸조위기 가시연의 보호와 이용방안 및 유용 성분분석' 작품을 공동출품한 경남과학고등학교 공영식·백광식교사가 차지했다.

이밖에 국무총리상 2점, 최우수상 12점, 특상 95점, 우수상 99점, 장려상 83점 등 총 2백93점이 당선되어 과학기술처장관상, 교육부장관상, 과총회장상 등 각종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번 제43회 전국과학전람회 입상작은 10월 2일부터 31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대전) 특별전시관에 전시되어 청소년 및 일반인에게 공개됐다. 전국과학전람회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1949년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이래 올해로써 43회째를 맞고 있다.

梁玄承교수, 「이달의 과학자상」 9월 수상자로 한국과학재단, 과학기술처에서 시상식 거행

學·研·産에 종사하는 연구인력중 우수한 과학기술자를 발굴 포상하기 위하여 한국과학재단과 서울경제신문사가 공동주관하는 「이달의 과학자상」 9월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9월 11일 權肅一과학기술처 장관, 朴炳濶서울경제신문사 대표이사, 朴辰好한국과학재단 사무총장 등 관계인사들과 수상자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처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權肅一과학기술처 장관은 9월 수상자로 선정된 梁玄承교수(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의 노고를 치하하고 표창장과 부상 및 기념패를 수여했다. 梁玄承교수는 1990년부터 지능형 이동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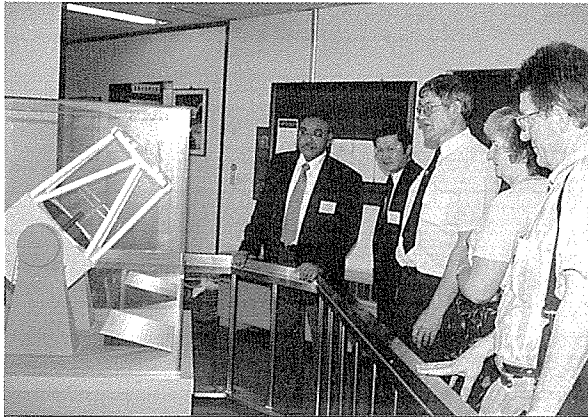


▲ 이달의 과학자상 9월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한 (왼쪽부터) 朴炳濶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 梁玄承교수부부, 權肅一과학기술처 장관, 朴辰好한국과학재단 사무총장.

봇 연구를 수행하여 1991년 국내 최초로 이동로봇인 CAIR-1과 CAIR-2를 자체 제작하여 제2세대형 로봇의 시대를 열었다. 양교수가 개발한 이동로봇은 키 1m, 무게 65kg의 크기에 바퀴가 4개 달리고 비디오 카메라 2대와 백8개의 센서가 장착되어 있다. 이 로봇은 초음파, 적외선, 촉각 뿐 아니라 시각, 청각 등의 고기능 센서정보를 고속으로 처리하여 로봇 주변의 환경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국문, 영문 각 50개 정도의 단어를 사용하여 로봇을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다. 양교수는 이러한 시스템의 개발에만 그치지 않고 연구결과를 국내외 관련 학계에 발표하여 현재까지 국외 20편, 국내 14편의 학술지 게재와 23회의 국제학술회의에서 연구성과를 발표한 바 있다.

세종대왕 탄신 6백주년기념 국제학술회의 개최 한국천문학회

한국천문학회(회장 姜用熙), 천문대, 한국우주과학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사학회가 후원한 세종대왕 탄신 6백주년기념 국제학술회의가



▲ 학술회의에 참석한 외국초청인사들이 전문대를 견학하고 있다.

9월1일 대덕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출연연구소, 학계, 언론계 등 국내외 인사 2백여명이 참석한 이번 학술회의는 박성래부총장(한국의국어대)의 '세종대왕대의 천문학사', 전상운박사(전성신여대총장)의 '세종시대 과학기술의 현대적 조명' 등 국내연사 4명과 국외연사 4명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번 외국초청인사들은 학술회의 후 천문대 견학을 했다.

'고효율 하수처리 신공정' 개발 성공 KIST 환경연구센터 安圭洪박사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朴元勳) 환경연구센터 安圭洪박사팀은 과학기술처 엔지니어링 핵심공통기반 기술개발사업으로 지난 95년부터 금호건설의 공동참여하에 30억원의 연구비 투입과 호주와의 국제 공동 연구를 수행한 결과 국내환경 여건에 적합한 '고효율 하수처리 신공정'을 개발하여 수질오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에 개발된 '고효율 하수처리 신공정'은 질소와 인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으며, 연속적인 하수의 유입과 침전, 방류 등 모든 과정이 동일 반응조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2차 침전지가 필요없게 됐으며 활성슬러지의 농축 및 반송과정이 생략되는 등 전체공정이

상당히 단축됨으로써 설치면적이 기존의 하수처리장보다 대폭 줄어들었고 20~25%의 초기 설치비용도 절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정가동에 자동화 프로그램을 채택하여 운전의 편의성 개선은 물론 경비절감의 효과도 볼 수 있다.

제6회 한림 석학강연 개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 제6회 한림 석학강연에서 1982년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영국의 Sir Aaron Klug박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趙完圭)은 9월 8일 서울대학교 호암생활관 컨벤션홀에서 1982년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영국의 Sir Aaron Klug박사를 연사로 초빙한 가운데 'The Regulation of Gene Expression'을 연제로 제6회 한림 석학강연을 개최했다. Sir Aaron Klug박사는 케임브리지대학의 분자생물학연구소에서 유전자 발현과 관련된 문제와 생물체 안에서의 거대분자의 기능에 관한 연구에 전념하고 있는 세계적인 석학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전자 발현에 관한 연구수준은 근래 들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했다고 할 수 있으나 분자생물학분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러한 때에 생명공학의 기초가 되는 분자생물학분야의 세계적 석학을 초빙하여 강연회를 갖게 됨으로써 국내 동분야의 학문수준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①7